

“정시 확대는 특권의 대물림 수단”

전북교육시민사회단체 “공교육 정상화 시켜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

“정부는 수능 위주의 정시확대를 철회하고 수능 절대평가를 당장 실시하라”

전북교육시민사회단체는 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권의 대물림을 없애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교육시민사회단체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어느 때보다 높고 대입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뜨거울 때 과감한 교육개혁이 필요할 때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는 대입제도를 정시나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 개선이 아닌 대학시열을 과감히 해체해 대학을 평준화하고 대학입학시험을 자격고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들은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은 타 전형에 비해 사교육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영향을 더 많이 받



전북교육시민사회단체가 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2105년 9월 ‘부모의 교육과 소득수준이 세대간 이동성과 기회불균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자녀가 저소득층 자녀보다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비율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서울대 정시모집 확대(안) 검토 결과’에 따르면 정시를

40%로 확대할 경우 강남 3구 학생이 1.5배 정도, 50%로 늘릴 경우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국민일보 2018년 5월 10일자 보도에서 예상했다며, 정시 확대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며 오히려 특권의 대물림 수단으로 작용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교육부의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들은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 했는데, 이제와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고 2025년에 자사고·외고 등을 일괄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2025년이 아닌 지금 당장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20학년도 부터 바로 폐지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020학년도 상반기 교장공모제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0학년도 상반기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3월 1일자로 교장 공석이 발생하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29개교, 중등 24개교 등 총 60개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이중 교장 결원(정년퇴직·종임만료)이 발생하는 29개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초등 8개교, 중등 11개교 등 총 19개교에서 가능하다.

교장공모 대상학교 중 지정용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서류를 오는 14일까지 초·중·고등학교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20일 교장공모제 운영학교를 확정하고, 21일 공모지정 학교 담당자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학교를 중심으로 오는 22~28일까지 지원자 접수를 받은 뒤 12월 10~12일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12월 17~19일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가 이뤄진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가 5일 의뢰기기 전문기업인 ㈜시지바이오, ㈜티디엠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부가가치 중재의료기기 연구개발 ‘박차’

전북대, 전문 기업과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는 최근 고부가가치 의료 산업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중재의료기기 개발 사업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전북대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 융합 연구센터(센터장 박찬희)는 5일 중재의료기기 공동 연구 개발과 기술 교류를 위해 의뢰기기 전문기업인 (주)시지바이오, (주)티디엠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학 측에서 김동원 전북대 총장과 박찬희 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고, 기업 측에서는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와 티디엠 김선미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와 중재의료기기 전문 기업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과 기술 교류에 적극 협력하고, 기업의 연구소 이전에 적극 노력하자는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장비 및 기업 공간 등도 공동으로 활용하고, 중재의료기기 연구개발과 기술정보 교류 등에도 적극 돕기로 했다.

기업들도 전북대 측에 각각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 대학 경쟁력 향상에 힘을 실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동원 총장은 “이 사업은 탄소나노소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중재 의료기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대형 사업으로, 전북을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융합기술의 글로벌 메카로 만들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들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경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는 올해 170억 원(국비, 전라북도, 전주시)이 투입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 미래 선도 기술인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 융합 연구’ 분야 선점과 기업 지원을 통한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탄소 나노소재 기반의 중재의료 분야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11월에도 풍성한 학부모교육

전북교육청, 달빛학교·놀이랑 놀자·특강 등 다채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11월에 다양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 저녁 7시부터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일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성장 달빛학교’가 진행된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의 저자 임승수 강사를 초청해 ‘1만원보다 1시간이 소중하다’를 주제로 자본주의 구조의 비밀과 한계를 분석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 격차 원인을 근원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놀이(父)랑 놀자(子) 아버지 교육’은 23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성남훈 강사와 함께 ‘아빠와 나만의 비밀, 박물관에서 사신으로 역사를 만들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및 아버지

5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28일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특강이 열린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논픽션작가 은유 강사가 ‘나와 당신을 연결하는 이해와 공감의 글쓰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저녁 7시에는 전북교육아가 데미가 이어진다.

4차 산업혁명 직업전문가인 석철진 교수와 함께 ‘미래사회와 교육 4.0’을 주제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교육 방법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

신청은 전북학부모지원센터 (<http://parents.jbe.go.kr/main/main.jbe>) 홈페이지에 접속해 희망하는 교육을 선택,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해당 프로그램 2주 전부터 시작되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도내 특성화고 대상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도내 5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고 진로취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특성화고 진로취업교실은 도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취업 부장 교사 및 전주대 취업지원 관련 교수·직원을 구성된 ‘특성화고 고용협의체’를 조직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 학교의 수요를 반영해 취업 교육, 기업 탐방 등 다양하게 지원된다. 또, 1:1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며, 학생과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진로취업교실을 운영하는 동안

특성화고교 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총 95회의 인사지원서 작성, 면접 컨설팅을 했으며 그 결과 우리은행 및 삼성화재 입사자, 지역인재 9급 공무원 등을 배출했다.

특성화고 담당자는 “올해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 취업 컨설팅을 이용하고 나서 서류 합격률과 최종 면접 응시 비율이 높아졌다”며 “특히,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응시생이 전원이 합격한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전주대 대학일자리센터 박근철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유관기관과 각 대학, 특성화고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도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임해린 수의사, 국제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 임해린 야생동물센터 수의사는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시아 야생동물 보존학회 국제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Society of Conservation Medicine)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북 지역에서 구조한 야생 조류에서 조류 말라리아 감염의 국내 유입 경로에 대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야생동물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것에 대해 우수성을 인정 받은 것이다.

임해린 수의사는 2017년부터 전북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수의사로 근무하며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수의과대학 야생동물의학 박사학위(지도교수 한재익) 과정에 재학하며 야생동물 질병과 치료를 연구해 왔다.

한편, 아시아 야생동물 보존학회(ASCM)는 야생동물과 특수동물,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 입상자, 질병 연구자, 종 보존 연구 전문가로 구성된 야생동물의학 및 보존의학 분야의 아시아 최대 학술단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꾸나가야 합니다